

스마트폰 앱 이용 대형 폐기물 배출

목포시·(주)갯다 업무협약 모바일 결제·중고 판매 전남 최초 내년 1월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목포시민의 대형 폐기물 배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목포시가 전남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28일 “대형 폐기물 배출 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최근 대형 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업체인 (주)갯다와 모바일 앱 ‘빼기’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발 지원 무료 수행, SNS 등 시민 홍보 적극 추진, 온·오프라인 대형 폐기물 서비스 활동 지원 등이다

현재 대형 폐기물 배출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업무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대형 폐기물은 중고로도 판매할 수 있다.

앱은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없이 모바일 결제로 처리하는 ‘직접 버림’과 민간 이삿짐센터와 연계해 혼자 버릴 수 없는 무거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 처분할 수 있는 ‘내려드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중고 가구나 가전제품은 입찰을 통해 중고업체에

판매하는 등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오는 11-12월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무료 제공하고 중고 매입 수수료로 운영된다.

목포시는 대형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스마트 앱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대와 배출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재성 (주)갯다 대표이사는 “전남에서 첫 ‘빼기’ 시행을 목포시와 함께 할 수 있



목포시가 내년 1월부터 전남지역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목포시와 대형 폐기물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업체 (주)갯다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 <목포시 제공>

어 뜻 깊다”며 “목포시의 탄소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폐자원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 시장은 “모바일앱이 대형 폐기물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폐기물 재

활용률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빼기’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목포=정혜선기자



이재승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추황배’ 선과 작업이 한창인 하늘이(梨)영농조합법인을 방문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나주시의 추황배 예상 수확량은 1천200t이다.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추황배는 건강과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주시 제공>

못생겨도 맛은 일품 나주 ‘추황배’ 본격 출하

1천200t 수확...폴리페놀 다량 함유 건강과일 ‘인기’

울퉁불퉁한 생김새지만 새콤달콤한 과즙이 일품인 나주 대표 특산물 ‘추황배’ 출하가 본격 시작됐다.

전국 배 최대 주산지인 나주지역에서는 이달 20일 전후로 수확한 만생종 추황배 출하가 한창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농가 직거래 및 소규모 영농 법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올해 추황배 수확량은 1천200t 안팎으로 예상된다. 나주배 전체 생산량의 3-4% 규모다.

추황배는 1985년 농촌진흥청 배연구소가 육성한 국산 품종이다.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기 보다 나주배

주품종인 신고배의 수분수로 이용되며 상품성 없는 잡배로 취급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나주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를 시도해 꾸준히 출하되고 있다.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검은 반점이 있어 못생긴 배로 불리지만 껍질 모습과 달리 아삭한 식감에 높은 당도와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새콤달콤한 과즙이 특징이다.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당뇨,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과일로 인기가 높다.

이재승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

근 추황배 선과 작업이 한창인 ‘하늘이(梨)영농조합법인’ 농가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상준 하늘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건강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 구매 인식에 따라 추황배 유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생산과 수취가격 보장을 위한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승 소장은 “고당도에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추황배는 과실 크기가 작아 최근 소과종 고당도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기 품종”이라며 “우수 품종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충환기자

영광열병합발전소 SRF 사용 불허

郡, 재불허 통보...공사 중단 수백억 손해소 불가피

영광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근 영광군의 SRF(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으로 사실상 공사 중단 상황에 놓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7월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5일 재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 주민 생활편의 및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발전소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는 등 영광군에 기존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영광군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허가 유무를 결정하겠다며 재불허 처분을 통

보했다.

앞서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발전 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 허가 등을 취득했다.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 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건설 반대 민원을 제기, 지난해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발전소 측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영광군, 영광군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발전소 반대대책위 핵심 관계자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사업비 1천100억원 가운데 560억원이 투입됐다는 계발전소 측의 입장이다.

지난해 2월 금융약정체결 이후 기계설비 등 전 공정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지역 협력업체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강대석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장은 “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손해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최선을 다해 행정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영광군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은진기자

진도군, 친환경 벚짚 환원 사업 추진

ha당 20만원 지원...안전 농산물 생산 기대

진도군이 친환경 벚짚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군은 28일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친환경 벚짚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벚짚 환원사업은 농지에 벚짚을 잘게 썰어 넣고 가을갈이를 실시한 농가를 지원하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병해충 저항력을 증가시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연순환농법 실천으로 화학비

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농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준다.

지원 단가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한 농가당 최대 1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오는 11월까지 현장 확인,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벚짚 환원 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영암소방서, 소방 안전대책 추진

영암소방서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영암소방서는 28일 “건조한 날씨, 난방기 사용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을 맞아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입체적 화재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전통시장 안전 관리, 일방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피난약자 시설 돌봄 인력 안전교육 등 5개 전략 27개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군민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이봉영기자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6층, 7층 (총분양 140평)

감정(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용 3억5천)

임대완료 (보 3천, 월 300만)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 1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 실전)
- 2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 실전)
- 3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 4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 수익가능)

· 전문반 무료제공·핵심, 컴퓨터제공, 매주1회 물건센터

광주	서구 풍암동(임야) ▶ 감정가 1억7천 → 1억7천 (10/28)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 8천9백 (10/29)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2억2천 (11/9)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4억3천 (11/9) 광산구 우산동(공장) ▶ 감정가 7억6천 → 5억3천 (11/17)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4억7천 (10/28)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5억4천 (10/28) 영암군 삼호읍(근린시설) ▶ 감정가 8억5천 → 4억8천 (11/8) 곡성군 죽곡면(주택) ▶ 감정가 1억9천 → 1억3천 (11/9)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19억 (11/17)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5억 → 38억 (11/22)
시외	경기도 파주시(근린시설) ▶ 감정가 26억 → 4억3천 (11/3) 부산 기장군(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6천 → 3억5천 (11/4)

062-382-5500